



제생의세

원광대학교병원 소식,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제 335호

차세대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2026년 5월 1일 (금)

김민석 국무총리 원광대학교병원 방문, 응급의료 이송 체계 점검 -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및 닥터헬기 계류장 방문, 의료진 격려 -



지난 9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원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진료체계를 살피고,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정

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 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주영국 소방청 119 대응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은균 원광학원 이사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김총리는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은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총리는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이동해 닥터헬기 이착륙 및 인계 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며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료 취약지 중증환자들에게 마지막 등불과 같다”며 “환자 이송부터 전문 처치까지 윈스톱으로 이뤄지는 이송 체계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전북권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응급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가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며, 전북권역뿐만 아니라 충청서해안의 중증 응급환자 생존을 향상 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기술개발 사업’ 선정 - 지역사회 기반 AI 활용 농촌형 자살고위험군 관리모델 개발 추진 -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

우리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 기술 개발 사업(자살관련사회문제

해결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우리병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기반 AI 활용

농촌형 자살고위험 정신질환자 자살예방 서비스 모델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진행되며, 총 연구비는 18억 7,500만 원 규모다.

이번 과제는 농촌지역 자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AI 기반 위험도 분석과 다각적 건강지표를 활용해 맞춤형 개입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위험평가 및 단계별 지원 체계를 포함한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해 현장 적용 가능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데이터는 표준화해 관리하고 향후 활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진 교수는 “AI 기술을 접목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 모델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험도 평가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일영 병원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 국제학술지 Cells 논문 게재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

호흡기내과 김학렬 교수가 조선

대학교 오선희 교수와 최근 국제학술지(IF 6.1)-2026, 15, 659에 폐암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비소(Arsenic)에 의해 유발되는 폐암 발생 과정에서 PPAR γ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조절하는 전사인자)의 역할과 세포 생존

기전을 규명한 것으로, 기존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발암 메커니즘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PPAR γ 가 폐암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결정하는 핵심 조절인자임을 제시하며, 향후 비소 관련 폐암뿐만 아니라 비소 노출과 연관된 발암 기전 연구와 치료 표적

개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경적 발암 물질에 의한 폐암 발생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임상 적용 가능한 치료 표적 발굴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원누리후원회, 지역사회 소외계층 위한 “제12회 은혜의 쌀 나눔”



우리병원과 공익단체 원누리후원회는 지난 16일 익산시 행복나눔마켓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12회 은혜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원불교 대 각개교절을 앞두고 제생

의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익산시청 복지정책과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복나눔마켓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날 우리병원과 원누리후원회는 백미 10kg 100포대를 익산시 행복나눔마켓에 기탁해 쌀값 상승으로 식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으로 의미를 더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회·영양팀 조리원들의 따뜻한 나눔



지난 15일(수), 우리병원 간호사회와 영양팀 송석미 외 26인 조리원들이 병원의 발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성껏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간호사회는 환자 간호 현장에서 느낀 병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60만 원을 기탁했으며, 영양팀 조리원 일동은 환자들의 건강한 식단

을 책임지는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모은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총 560만 원의 기금은 향후 병원의 의료시설 확충 및 환자 진료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간호사회 이안생 회장은 “병원의 발전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으며, 영양팀 조리원 대표 송석미 반장은 “정성껏 만든 음식이 환자들에게 힘이 되듯, 이번 기부가 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불교 군종교구에 교화지원금 1,000만원 기탁



지난 20일(월), 우리병원이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원만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해 원불교 군종교구에 교화지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지원금은 원불교 군종교구를 통해 군 장병들의 마음공부 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장병 위문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군종교화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일영 병원장은 기탁식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한 교화 활동이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원불교 군종교구 문정석 교구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원금은 장병들의 마음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해경구조대 대상 “고압산소치료 및 잠수사고 대응” 교육



지난 28일 군산해양경찰구조대원 고에 대해 구조대원들이 보다 과학

7명이 우리병원을 방문하여 본원 고압산소치료실에서 잠수 관련 사고 대응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해상 구조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수 관련 사

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식을 습득하고,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병원 고압산소치료실은 고농도 산소를 체내 혈액에 직접 공급해 다각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잠수병 치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 당뇨병성 족부궤양, 화상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압산소치료팀 김선태 팀장(응급의학과 교수)은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 구조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본원의 의료 인프라이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육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건강강좌 개최



지난 24일 대한재활의학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건강해 봄, 행복해 봄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장애인과 보호자, 의료진 등이 참여해 재활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김지희 재활의학과 과장은 “재활은 단순한 기능회복을 넘어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

심 접근이 이뤄질 때 재활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이번 건강강좌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 I-Partners’ 발대식 개최



우리병원 감염관리실이 지난 2일(목), 현장 중심의 감염관리 혁신을 위한 ‘2026 I-Partners’ 발대식을 개최했다. ‘I-Partners’는 병원과 개인을 잇는 혁신적

파트너의 의미로, 이번 사업은 기존 하향식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부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구조로 기획됐다. 올해는 SOPS(환자안전문화 설문조사) 기반의 조직문화 측정과 CUSP(포괄적 단위기반 안전 프로그램) 방법론을 결합하여, 보다 과

학적이고 실질적인 감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준 감염관리실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우수 사례들을 병원 전체로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감염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부, 1,000일 기념 “Nurse Story” 행사 개최



지난 10일(금) 원 불교 중앙총부에서 입사 4년차 1,000일을 맞은 간호사 124명을 대상으로 “1,000일 Nurse Stor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년간 환자 곁에서 헌신해 온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

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000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응원하는 취지로 박대성 교무의 “마음 처방전 - 비움 한 스푼, 채움 한 알” 명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이달원 교무와 함께한 레크레이션, 송우진 교무의 인도로 진행된 익산 성지 순례 등이 진행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안생 간호부장은 “간호사 스스로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환자들에게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며 “간호부는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14일(화),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전북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지회장 최해수)와 장애인 이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재활의료 지

속관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의료서비스와 이동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애인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이동의 제약 없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보건·복지와 이동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경찰서와 청소년 도박 예방 업무협약 체결



우리병원 도박중독치유 위탁기관은 지난 21일 군산경찰서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예방 활동과 위험군 조기 발굴,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및 개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193회 WKUH 친절직원



♥ 응급실 황희정 간호사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변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긴 세월만큼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제가 변함없이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은 '환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이었습니다.

바쁘고 긴박한 업무 속에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환자분들의 따뜻한 감사의 말과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모습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번 선정은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해 주신 뜻깊은 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광은 함께 고생해 온 동료들 덕분이라 여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의 아픔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3회 WKUH 친절부서



♥ 45병동

이번 친절부서로 선정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작은 친절을 좋게 봐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세심하고 일관된 친절을 실천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더 고민하며 환자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합니다



♥ 병동 임거백 병동관리원

바쁜 업무 속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환자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언제나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며, 밝은 모습으로 근무 환경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추천인: 83병동 김수현 간호사

이달의 간호사



♥ 81병동 주유미 간호사

부족한 저를 '이달의 간호사'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더 발전하는 간호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의 글: 81병동 김현숙 수간호사

주유미 선생님은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소아과병동의 친절 간호사입니다.

타고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병원 행사와 병동 업무에도 늘 솔선수범하며, 부서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로 선·후배와 동료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먼저 다가가며, 함께하는 인간미 넘치는 간호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유미 간호사를 널리 칭찬하고자 합니다.

4월 28일 원불교열린날 대각개교절 기념식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을 맞아, 지난 22일 병원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은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소태산 대중사의 대각의 기쁨이 환우분들과 지역사회에 은혜의 빛으로 전해지기를 염원하며 병원의 미션인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념식은 원불교 중앙총부 공익복지부장 시타원 문수영교무의 설법과 특별영상 시청 및 공동생일을 축하하는 케익 촛불 점화 등으로 전 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원광대학교병원이
개원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 2026 5. 20.(수) 16:00 외레관 4층 대법당 -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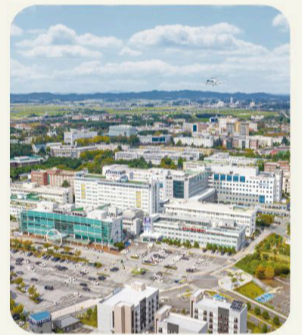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1984년



원광의료원 신축 이전

2026년



현재의 원광대학교병원

직/원/동/정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신규임용 인사발령 기준

의사		간호사	
• 병리과	차은정	• 인공신장실	김미소
		• 31병동	김서현
		• 51병동	이취인
		• 52병동	이다민
		• 53응급병동	양해성
		• 61병동	배수빈
		• 62병동	김유빈
		• 63병동	임윤서
		• 73병동	최영호
		• 91병동	송주희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3월 퇴직

의사		간호사	
• 기아(주)오토랜드광주의원	김효주	• 45병동	박지은
		• 55병동	양주희
		• 61병동	이지수
		• 91병동	김정연
		• 102병동	박지형
		• 인공신장실	최유진
		• 전담간호팀	김현지
		• 제3집중치료실	정유미
• 영상의학과	박희수	• 권역응급집중치료실	김하람 마동빈
		• 간호외래 순환기내과	김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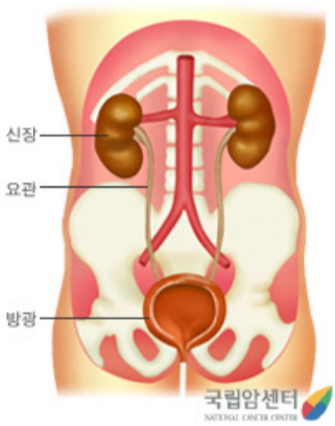
재발과의 싸움, '방광암'

비뇨의학과 김홍욱 교수



비뇨의학과
김홍욱 교수

Q1. 방광은 어떤 장기인가요?



방광은 골반 내 고관절 사이에 위치한 장기로, 내부가 비어 있으며 근육으로 이루어진 풍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저장·배출하는 기능을 하며, 대개 300~45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Q2. 방광암은 어떤 암인가요?

방광암은 주로 5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방광 내부를 덮고 있는 요로 상피세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 후에도 재발하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암 환자는 치료 이후에도 수년간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Q3. 국내 방광암의 유병률 순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2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방광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남녀 성비는 3.9:1로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며, 발생 순위는 남성 암 중 10위, 여성 암 중 14위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6.5%, 80대 이상 2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4. 방광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방광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커피, 진통제, 인공감미료, 감염, 결석, 방사선 조사, 항암제 등이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담배의 양과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증가하며, 흡연을 시작한 연령이 어릴수록 방광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염료, 고무, 직물, 화학 공장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방광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유전적 요인 역시 방광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 방광암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혈액이 섞인 소변, 즉 혈뇨는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짧은 기간 지속되고, 양이 적거나 통증이 없더라도 절대 정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혈뇨는 어떤 경우에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갑작스럽고 참기 어려운 요의를 느끼는 절박뇨, 배뇨 시 통증이 있는 배뇨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방광염 등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방광암과의 감별을 위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6. 방광암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혈뇨가 있을 경우, 먼저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증상의 양상과 동반 증상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흡연 여부, 직업, 약물 복용 여부 등 위험 인자에 대한 노출도 함께 평가합니다.

이후 요검사를 통해 실제 혈뇨 여부를 확인하고, 염증이나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변 내 암세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는 요세포검사가 있으며, 내시경을 통해 방광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방광경검사는 방광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로 종양의 유무와 위치, 모양, 개수, 크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방광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무조건 방광을 제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광암의 치료는 병기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광경에서 종양이 확인되면, 마취 후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여 병리검사를 통해 암의 분화도와 병기를 확인합니다.

비근육침윤성(표재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이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암이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에서는 방광을 제거하는 방광적출술이 표준 치료가 됩니다.

Q8. 방광암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네, 다른 암에 비해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비근육침윤성 방광암은 약 70%에서 재발이 발생하며, 10~15%에서는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발과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방광 내 약물 주입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광암은 재발이 잦은 대신, 재발 시에도 다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Q9. 방광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또한 방광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광암의 치료법과 치료 후 경과 및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광대학교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광대학교병원tv에서
확인하세요



영상바로가기



이 달의 법문

감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송우진 교무

‘감사하는 마음’을 챙기기 좋은 달이 왔습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국제 간호사의 날(12일), 스승의 날,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기념일(15일), 부부의 날(21일), 부처님 오신날(24일), 바다의 날(31일)로 이어지는 눈부신 감사의 날의 연속입니다. 각 기념하는 날마다 그 은혜들을 잠시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

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늘 베풀고 계시는 사은님(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륜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과 국제 간호사의 날,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기념일에는 우리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고마움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포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에는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인 ‘부모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날에는 무한한 품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천지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에는 종교와 도덕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살게 인도해 주시는 성자들의 ‘법륜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는 이미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에 우리

가 느끼고자 하면 언제든지 감사의 기쁨과 충만함을 맛볼 수 있겠지만 때때로 분주한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을 정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이신 대산 종사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모든 순간이 감사로 느껴진 삶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다양한 경계의 파도에서 출렁거리도 사은님의 도움으로 다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리기 좋은 달 5월, 우리를 위해 쉽 없이 애쓰시는 사은님의 은혜를 묵묵히 떠올려 보며 나의 삶의 궤적이 따뜻함과 은혜로 물들여져 조금이나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법회안내

- 1부 법회** 매주 수요일 12:40
- 2부 법회** 매주 수요일 15:40
- 영양팀 법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09:40 (장소 : 교직원 식당)

063) 859-0012

마음으로 이어가는 생명의 이야기

‘원광대학교병원 발전위원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원광대학교병원의 새로운 도약이 됩니다.
의료의 미래, 소중한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열어갑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불우환자 지원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 구입 등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의 발전
- 학술연구, 장학기금

원광대학교병원 후원계좌

농협 351-1136-1699-73
새마을금고 9002-1935-3455-6

기부 문의

총무팀 전화) 063.859.2064 팩스) 063.858.3922

기부자 예우

예우내용	후원금액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디지털 명예의 전당 등재		●	●	●	●	●	●	●
명예의 전당 동판 명패제작		●	●	●	●	●	●	●
진료비감면율	진찰료				● 50%	●	●	●
	본인부담금						● 50%	●
종합건강검진(기부금 10% 이내)			●	●	●	●	●	●
무료주차(1대)				●	●	●	●	●



뇌졸중 치료 가장 잘하는 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차 연속 1등급



전국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실시
원광대학교병원 전 항목
모두 100점



‘내 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종합건강증진센터

800평 규모, 호남권 최고의 검진센터

원광대학교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는 수준 높은 진단 노하우와 교수진, 검증된 병원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건강진단 전문센터입니다.

전문성 높은 진단, 정밀 의료장비, 평생 의무기록 통합관리 등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 및 시설을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장인들의 건강검진 편의 증진을 위해 토요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63) 859-1122, 1144

권역응급의료센터	1577-3773	전북금연지원센터	063)859-2400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063)859-1506	대표전화/전화예약 1577-3773 <small>응급의료전용헬기 063)837-8334~6 (항공의료팀)</small>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063)859-1991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063)859-1375	종합건강증진센터	063)859-1122	
권역외상센터	063)859-1188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63)859-0051	암센터	063)859-1180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577-3773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063)835-6700	국제진료협력센터	063)859-0123	
고압산소치료실	063)859-1069	익산권지역책임의료기관	063)859-0066	진료협력센터	063)859-2585	